

교회 목표

신랄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이웃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다음 주일(5월 7일), 제4차 성찬식 및 어린이·아버지 주일(가족 연합예배 2·3부)

이 시대는 가정을 중시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서적과 세미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정을 묶어 주면 끈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래부터 가정을 묶어 주면 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말씀의 끈으로 묶어 있어야 합니다(엡 6:17). 말씀이신 예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에만이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히 3:6).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며(엡 6:1),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엡 6:4),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골 3:18)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주일은 제4차 성찬식이 있는 어린이 및 아버지 주일입니다. 특히 2·3부는 가족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더욱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한 주간 성찬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진실한 회개와 기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부와 3부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은 성찬에 대해 미리 가르쳐 자녀들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3부 예배 시 혼잡이 예상되오니 종직자 가정은 2부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은 빠짐없이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 느낀 해진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의 힘으로 풀 수 없도록 굳게 할 것입니다(히 12:2).

(*영아·유아·유치부는 지체예배)

오늘(30일), 초·중 도서관 개관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이용시간: 주일 오전 8:30 - 오후 4:30 장소: 제1교육관 7층

빈 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침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어쩌랴 할까 제자들은 고민하였습니다(마 14:15). 이 때 자신이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한 소년의 오병이어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놓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놓고 기도한 후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마 14:20).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아무런 힘도 없이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요 6:9). 아마도 이 소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음식이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 소년에게 처음부터 음식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말씀이 어린 소년을 변화시켰습니다(히 4:12). 그래서 초·중 도서관 개관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듯한 시절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아니라 이 장소가 복음을 깨닫고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갈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관 4층에 있는 도서관이 청년과 장년을 위한 복음의 공간이라면 이곳은 어린이와 중학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자녀들과, 복음을 사랑하는 어린이, 교화성을 위한 공간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눅 18:16). 이곳에는 십자가를 전할 일꾼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도서 600여 권과 연령에 맞는 영상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 주일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실황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한 한 소년이 기적의 오병이어를 드렸듯이 초·중 도서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천국일꾼이 이루어 낼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관련 도서와 영상자료를 기증합니다. 문의/사무국)

5월 교회 일정

7일(주일)	제4차 성찬식(1-5부 예배 시) 어린이·아버지 주일(가족 연합예배 2·3부)
10일(수)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수요 2부 예배 시), 정기 담회
17일(수)	교회주변 전도(수요 1부 예배 후)
21일(주일)	총동원 전도 주일(교구 및 교회학교)
23일(화)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

말씀은 나의 생명!

세상의 지혜로 인한 자존심

자존심(2)

(욥 1:3)

예뻐 족속은 그들의 지혜에 대하여 커다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각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욥 1:8).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뻐 족속에 말씀 하셨습니다.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욥 1:7). 여러분은 자신의 지혜에 대해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친구가 있으며, 재정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영혼을 눈 멀게 하는 자존심

자존심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 위에 어떤 것을 세우든지 그것은 잘못된 기초입니다. 자존심으로 가득한 경험자들은 여러분을 노리는 속임수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방해할 때, 그는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저다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의를 생각한다면, 매우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의를 생각한다면 자기 의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자기 의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자존심은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자존심

자존심은 악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뻐 족속의 자존심은 그들을 사납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냉담하고 공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욥 1:10,14). 그들은 예루살렘이 적에게 점령당하는 불행을 즐겼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둘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저버렸습니다(욥 1:16). 실제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원수를 모셔둡니다. 그들은 마귀의 편을 드는 자와 같이 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은 분당하게 되고, 그 눈은 멀게 되고, 그들의 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그들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욥 1:16,17).

십자가는 인간을 자존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존심은 하나님을 멸시하기를 계속합니다. 예뻐 족속의 자존심은 그들을 전적인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진리요 길과 생명이 되십니다. 어서의 자존심은 멸망으로 주저앉게 하였고 아픔의 자존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자꾸 작아지게 해야 하며, 마음에 있는 자존심을 버리고 대신에 십자가의 은총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낮아진 만큼 십자가는 높아질 것입니다.

김성관 위임목사

Sermon for Next Sunday

ARE YOU THE EXPECTED ONE?

(18) And the disciples of John reported to him about all these things. (19) And summoning two of his disciples, John sent them to the Lord, saying, Are You the Expected One, or do we look for someone else? (20) And when the men had come to Him, they said, J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You, saying, 'Are You the Expected One, or do we look for someone else?'... (21) I say to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John; ye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Luke 7:18-28)

Can you believe that John the Baptist, while imprisoned, asked this question to Jesus? Why would this man, of all men, ask such a question? Did someone hit him on the head causing him brain damage? Did prison make him crazy? Did he change overnight into a hypocrite? What was going on with John that would make him ask Jesus this question? His disciples had just reported to him that Jesus raised a widow's dead son. Right after hearing this miraculous news,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to the Lord, saying, "Are You the Expected One, or do we look for someone else?" (v.19) Coming from John, this really is a strange question.

From the womb, God chose John to prepare and witness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angel Gabriel prophesied to his father, Zacharias,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will drink no wine or liquor,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le yet in his mother's womb.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sons of Israel back to the Lord their God. It is he who will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Lk. 1:15-17). How could such a man wonder if Jesus was the Messiah?

From infancy to manhood, John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growing up in the deserts "until the day of his public appearance to Israel" (Lk. 1:80). His first sermon was,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t. 3:2). His ministry unified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and prepared the way for Jesus' ministry. He was the one crying out to the people because he wanted to share with them what he knew and they did not. Luke 3:3&4 says, "And he came into all the district around the Jordan,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make ready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His job was to proclaim the Messiah's coming. His preaching woke-up the Israelites to what was really happening. He clearly showed them who the Messiah was. Given this situation, how is it possible for him to ask Jesus this question?

John baptized Jesus in the Jordan. As soon as Jesus came up from the water, John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as a dove and lighting on Him (Mt. 3:16). He testified, "I have seen the Spirit descending as a dove out of heaven, and He remained upon Him" (Jn. 1:32). John actually heard God's voice from heaven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Mt. 3:17). When Jesus approached Him, he told the crowds surrounding him,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He even confessed, "I myself have seen, and have testified that this is the Son of God" (Jn. 1:34). How could this man ask Jesus if He was the Christ?

John told his disciples that Jesus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Jn. 3:30). As Jesus increased and John decreased in prison, he began to doubt. He looked at Jesus as the Messiah, but expected political and economical results. As King of kings, Jesus was going to rise to glory, but John's idea of glory centered on earthly riches. If Jesus were going to be king, then surely he would be the prime minister, not a prisoner. His disappointment and anger came about because of his limited knowledge of a heavenly Messiah. In the presence of the two disciples John sent, Jesus "cured many people of diseases and afflictions and evil spirits; and He gave sight to many who were blind" (v. 21). These were things the Old

Testament predicted that the Messiah would do, and Jesus had done them to reassure John of who He was. He told John's two disciples, "Go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up, the poor have the gospel preached to them" (Lk. 7:22). Jesus also said, "Blessed is he who does not take offense at Me" (Lk. 7:23). Whoever does not doubt, He will bless.

Jesus knew John needed this truth. He was not the Messiah who would overpower the Roman government or bring John earthly riches in this life. He was the Messiah who would spiritually clean poor sinners, "Then the eyes of the blind wi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will be unstopped. Then the lame will leap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mute will shout for joy" (Isa. 35:5&6). This was Jesus' ministry work! Isaiah further described the Messiah's ministry,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afflicted;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and freedom to prisoners; to proclaim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 (Isa. 61:1&2). The Messiah was coming to bring salvation. John 3:16&17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judge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Paul understood this truth, "and the grace of our Lord was more than abundant, with the faith and love which are found in Christ Jesus.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1 Tim. 1:14&15).

As a Christian, you need to be careful. John saw and heard the truth of Jesus Christ, but he needed to hear it again because of his own expectations. 1 Corinthians 15:58 says,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Hebrews 10:38&39 also says, "But My righteous one sha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My soul has no pleasure in him. But we are not of those who shrink back to destruction, but of those who have faith to the preserving of the soul." John the Baptist believed in the Messiah, but he believed in his own making of the Messiah. Please do not be proud that you think you know Jesus. Please deny yourself and ask God to help you.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1 Pet. 1:3&4).

Are you a Christian? It is a legitimate question considering we are worse than John was. How can you trust who is a believer and who is not if John has this question? Christians say they love Jesus, but they turn around and do all sorts of bad things that contradict their faith. Do not be proud of yourself, for you will fail. If you rely on yourself, you will start doubting, but if you become dependent on Jesus Christ He will teach you everything. My dear friend,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in the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our Lord; seeing that Hi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true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excellence" (2 Pet. 1:2&3). 

다음을 주일 설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제자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18~28)



김성필 목사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아서 뇌 손상이라도 입은 결과요? 아니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한 것일까요? 밤 사이에 위선자로 바뀌기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보고를 마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제자들 중 두 사람을 주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19절). 질문을 한 사람이 다른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하나님은 요한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증거할 사람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눅 1:15-17).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인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즉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눅 1:80) 요한은 빈 들에서 지내면서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이것이 그가 외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구약과 신약을 통합했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나누기 위해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4은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오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철궤를 평탄케 하라” 그의 역할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작 긴장한 채 현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막 올라왔을 때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마 3:16). 그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요 1:32). 요한은 실제로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방에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요한은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요한은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요 1:34).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입니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의의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홍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홍여지고 자신이 감옥에서 쇠해져 갈 때 요한은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았지만 정치적, 경제적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만민의 왕으로 예수님은 영장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생각한 영광은 세상적인 부유함에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은 복수가 아니라 충기가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까. 그의 실패와 분노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지식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보낸 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질병과 고��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

을 보게 하셨습니다(21절). 이것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행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의 들은 자와 앉은 자와 앉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22).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눅 7:23).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인생에서 요한에게 세상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을 깨끗케 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사자의 의는 노래하리니”(사 35:5-6).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계속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들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사 61:1-2). 메시아는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16,17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 하리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진정 중에 내게 귀수니라”(딤후 1:14,15).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도 사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기대지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58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행한 행제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망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0:38,39 또한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몰에 빠질 것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례 요한은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은 것은 자신이 만들어 낸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도말되라고 간구하십시오. “찬송하리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 구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요한마저 이런 의문을 가졌다면 누가 신자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들은 믿음에 어긋나는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영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벧후 1:2-3).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젊은이들, 벤엘 찬양대



장세식장로, 벤엘찬양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벤엘 찬양대는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감사하고 기쁘지 이에 감격해서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만 찬양을 돌리고 싶어하는 대학부와 청년부 지체들로 구성된 젊은이들의 찬양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다가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편지 1:3).

벤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는 주일 5부 예배(오후 3시)를 섬기고 있는 찬양대입니다. 120여 명의 찬양대와 20여 명의 오케스트라 대원이 젊음의 때에 온 힘을 다 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엘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보며 젊은이들만의 패기와 힘과 정성과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은 찬양대원 모두가 합심하여 부르는 사랑의 하모니로서 예배 중 찬양은 모두 악보를 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찬양을 하든, 다른 어떤 일을 하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는 전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감 있는 찬양, 믿음의 찬양, 은혜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사를 외워서 불러야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곡조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나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 12:1). 벤엘 찬양대는 대학부와 청년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깨달은 천국 일꾼입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헌신된 사명을 갖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사로서 젊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젊은이들은 항상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요 4:24) 벤엘 찬양대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의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서의 결코 이해가 안 되는 합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서 주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천국 일꾼들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가족부를 수료하며

“징검다리를 놓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

♥ 이 자리에서 오기까지 24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릴 적 믿었던 예수님을 외면한 채 끊임이 방법을 하다 이 세상 이렇게 온 가족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갈이해 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제는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손순환)



♥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막연하게만 믿었는데 이제야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마음 속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박영숙)

♥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료하기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최영철)

♥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의 죄악된 마음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한 해진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시어서 제 마음을 늘 주장하시길 기도합니다. (김경숙)

♥ 20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해 온 시동생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제야 응답하셨나 봅니다. 시동생의 말이 늘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정의 힘든 상황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 교회 가라고 권면하는 시동생의 권유가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교회에서 가족 모두가 큰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김현숙)

♥ 주님을 알고부터 이 회회를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의 죄를 회개하며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오영민)

♥ 오기 싫어서 피도 많이 내었는데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과 세가족부 선생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가슴에 영원이 살아 계시는 아닐까요? (최경희)

♥ 저는 중국 번민에서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힘든 나날로 웃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전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뒤 제 얼굴에는 웃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찾은 기쁨을 꼭 전하여 살겠습니다. (김옥순)

♥ 아주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믿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진아)

♥ 오늘 세가족부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새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영민)

♥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들을 예수님께 털어 놓으며 매순간마다 기도 응답에 주셔서 놀랍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한영정)

♥ 의미 없던 제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건너가도록 징검다리를 내려 놓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늘 회개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김대성)

(정리 : 편집실)

복음을 전하는 기쁨!

이번 **선교**는 저에게 첫 선교였기에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은 하루 하루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글로 쓸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생후 3주 된 아기가 있는 집을 방문하였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 아기의 이름을 짓지 못했더니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팀의 한 집사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이 가정에 복음의 열매가 넘치고, 그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준비보다는 오직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단상하고도 가장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사역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윤수정(청도부 1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도착한 첫 날부터 저는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진흙탕 물로 세수하 샤워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왜 사역자를 이런 곳으로 정했을까?'라는 불만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눈 수술을 두 번씩이나 했던 저로서 이 흙탕물에 세수하는 일이 두렵고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곳에 왔니?'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오지 사역에 들어갔으며 길을 잃어 잘못 간 곳을 통하여 더욱 귀한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등,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담대한 용기를 주사 부족한 언어로도 큰 어려움없이 팀 일원이 건강할 모습으로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에서 사는 것도 불쌍한데 예수님을 모르고 자욱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오늘까지 좋은 환경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주님께 나는 아무 것도 보답해 드린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깊이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전적으로 나를 부린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자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진모(권사, 12교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증인들의 함성

선교지에 막상 도착하여 보니 제 기도가 많이 부족했음을 느꼈습니다. 현지어를 준비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 현지인들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변질된 믿음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선교지의 더위와 습기, 모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나약함과 완전히 못한 자기부인의 관성에 따라 타성에 젖은 전도를 하려는 자신과 싸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자신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단과의 싸움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팀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말 나약한 저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형배)

사역 중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영혼들을 믿게 해야 한다면?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거부할수록 더욱더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 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에 관한 기도가 가장 큰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던 영혼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군사 지역에서 사역하던 중, 우리 팀은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어쩔면 추방당할 위험에까지 직면했습니다. 팀장님이 경찰과 면담하는 동안 우리 팀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눈을 뜨고서 차태대로 팀원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쪽에서 팀장님이 경찰과 웃으면서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으로 돌아와서 고맙한 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준형)

선교를 가기 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였고 저희들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더 깨어져야 함을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매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계달는 선교였습니다. (오 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대략부 각 팀의 간증문에서 발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일(월) ~ 5월 9일(화)	10교구 4지역	조영철
5월 1일(월) ~ 5월 9일(화)	11교구 3지역	정경수
5월 1일(월) ~ 5월 9일(화)	3교구 6지역	문영규
5월 1일(월) ~ 5월 9일(화)	16교구 2지역	현준봉
5월 2일(화) ~ 5월 10일(수)	1교구 3지역	구원섭
5월 2일(화) ~ 5월 10일(수)	초등부(1)	지규성
5월 2일(화) ~ 5월 10일(수)	3교구 8지역	한현석
5월 3일(수) ~ 5월 12일(금)	7교구 2지역	최대환
5월 5일(금) ~ 5월 13일(토)	9교구 2지역	김종성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7일(목) ~ 5월 4일(목)	15교구 4지역	김태식
4월 27일(목) ~ 5월 6일(토)	7교구 1지역	조종민
4월 28일(금) ~ 5월 6일(토)	18교구 3지역	김원호
4월 28일(금) ~ 5월 6일(토)	18교구 5지역	한만교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7일(월) ~ 4월 26일(수)	12교구 4지역	강창식
4월 18일(화) ~ 4월 26일(수)	3교구 5지역	정창수
4월 18일(화) ~ 4월 26일(수)	직 원(5)	최준호
4월 18일(화) ~ 4월 27일(목)	5교구 5지역	정태동
4월 18일(화) ~ 4월 27일(목)	15교구 2지역	이강근
4월 18일(화) ~ 4월 27일(목)	15교구 3지역	최진성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 간다. 난 모태 신앙이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요만 그분을 알고 있었다. 성장하며 '난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가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라는 생각도 했었고 솔직히 불과 1년 전까지도 주님의 실존을 의심했었다. 이처럼 힘들 때 도저히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예수님을 찾았고, 진짜 주님이 계시다고 확신할 때는 단지 수련회에 갔다 온 후 정도였다.

이런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단기 선교를 갔다는 후부터였다. 실은 단기 선교를 준비 할 때도 나는 영적으로 부족했다. 심지어 사역 중에도 난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힘들 때는 주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사역은 끝났으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전 그들을 해결할 능력조차 없었다. 그때! 난 다시 주님께 기도했고 간구했다. "도와 주세요. 도와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친구들과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찾았다. 절대 풀리지 않을 실종처럼 얽혀 버린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렸다. 그랬다.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지치지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혹은 이런 죄인이 넘어지진 않기를 내 발을 붙들고 계셨다. 또한 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핍박할 때도 항상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시고 영원히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함께 하실 거라고 난 믿는다.

목사나(종동3부)

복음을 깨달은 천국일꾼을 소망하며

'나의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 왔는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려 주었는가? 또 나는 얼마나 십자가 앞에 바로 왔는가?'라는 생각들이 저를 두렵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12명의 초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식하지만 확호 정도를 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며 아이들을 심방하였습니다. 가정을 심방하면서 전화 심방이나 면접 심방에서 알 수 없는 아이 가족의 기도 제목들과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성격과 신앙의 깊이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들을 주셨음에도 저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 할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뎠게 가는 저의 죄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에게 항상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혹은 알면서도 내가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제 심령에 찾아와 문 두드리셨습니다. "재복아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비록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는 못 하지만 성령인 재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본으로 보여준다면 어느 순간 아이들은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천국일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권재복(교사, 초등부)

감사 또 감사의 찬양!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의 찬양과 신앙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뀌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불가리아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중에 진짜 믿음, 진짜 찬양을 깨달았고 그 때 저의 찬양은 재가 좋아서 부르는 찬양,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불안하던 저의 몸은 평안해졌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찬양이 바뀐 두 번째 계기는 고등학교 올라와 찬양대를 하면서입니다. 찬양대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찬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찬양대원 모두가 찬양을 준비할 때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드린 찬양은 물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지만 '나의 감동과 기쁨이 많이 섞여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었고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죄인의 찬양을 받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승훈(고등부)

* 출생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서부터 찬양대 모습에 눈을 못 떤다. **“숙이!”**가 “나 저 옷 입고 노래할 거예요.” 해서 찬양대에 서게 되었어요. 집에서 “숙이 찬양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하며 열심히 연습하고 기본 춤을 때도 놀 때도 언제나 찬양을 입에 달고 지내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어 보였고, 더욱더 즐겁게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장

했으면 하는 소망에서 찬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같은 규린이지만 어려운 찬송가를 반복하다 더 쉬우고 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 은진이가 초창간 미술을 열어 찬양하면서 아기 천사처럼 기뻐하는 모습

이 자랑스러워요.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은진이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4개월 된 예지가 과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일주일 내내 찬송가를 부르며 그 아이를 통해 가족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대를 하면서 아이 스스로가 유아부에 적응을 잘 하게 되어 기뻐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찬양!

(유아부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백)



* 초창간이 성가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항상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초창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 처음 찬양대를 하고 싶어 **“숙이!”**가 먼저 찬양대에 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는 것을 망설이다가 지금은 아주 좋아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게 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찬양대 하나가 재미있고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지미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귀여운 어린 양 한 마리가 무럭무럭 자라 웃음 꽃을 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5개월 된 예민이가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민이가 요즘은 지금까지 배운 찬양들을 수시로 소리내어 즐겁게 부를 때 어머니 나조차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앞으로 예민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을 높이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탐방 자원봉사부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누는 기쁨



오즈음 교회의 여기 저기서
초록색 조끼를 입은 성도들의 모
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원봉사를 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
천하는 이 분들의 활동을 들어
봅니다.

자원봉사부는?

자원봉사부는 미화, 달란트, 주일 봉사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화 봉사는 주로 1-19교구의 자원
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교회에 나와 맡겨진 구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동산은 텃밭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즈음에는 선교팀들이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봉사는 달란트를 가진(창조, 전산,
전기, 음악, 연식, 조경, 식당) 성도들이 봉사하고 있고, 주일 봉사는 주일 오전 8시 20분 기도회를 시작
으로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시작됩니다. (백종훈 안수집사, 서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여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예배당을 깨끗이 청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
도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년째인 자원봉사에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주
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훈 목사, 지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 11:6)"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 없고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원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이곳에서 자기를 부인
하여 회개할 청소까지 미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호(광복, 부장)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달라진 점은?

작은 달란트이지만 나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 달란트에는 많은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자가 아니라더러 전산에 달란트가 있으면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훈 안수집
사, 전산담당)

봉사를 시작하면서 매우 주요 1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예배에 대한 은혜를 더 풍성
히 내려 주시길 믿어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 생각을 뛰어넘어 교구 식구들의 위해 번 봉사를 보
게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에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기 안수
집사, 18교구 담당)

전혀는 모습에 은혜를 받고 주님께 제 삶을 더 드리지 못함을 회개하며 주일에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 이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김영희 집사, 봉사)

새신자들이 봉사를 하며 교회에 잘 정착하여 가는 모습을 보여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도 부담 갖지 마시고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봉사에 동참하신다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성실 안수집사, 12교구 담당)

서약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보됩니다. (이강
근 안수집사, 15교구 담당)

매주 화요일 간사님들이 기도원에서 봉사를 하고, 토요일 새벽예배를 마치고 안수집사님들이 총헌동
산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3월에만 3,800명의 봉사자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종직자들이 교회
를 돌아보며 봉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차고 남김을 경험합니다. (이연영 안수집사, 간사)

주일에 봉사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주일에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러 나가면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교회 근처에 사는
한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고 묻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
였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를 깨끗한 거리로 보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
다. (이연영 안수집사)

새신자 한 부부가 매주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자신들이 집에서 직접 청소 도구를 가져와 교회 청소
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백영식 안수집사, 총부)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국수를 가져오시다 바닥에 국물을 흘리셨는데 봉사자 한 분이 자신의 손수건을
얹은 거내서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기는 이런 분들이 있어 저를 보는 더 힘이
납니다. (정영애 안수집사, 식당담당)

성도들께 부탁의 말씀은?

교회 시설을 사용한 뒤에는 상하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백종훈 안수집사)

선교에 필요한 물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에 와서 때라도 봉사하여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 평일에 봉사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사무국에 신청을 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연영 안수집사)

3월부터 교회 내에서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영식 안수집사)

오늘도 아침같이 수고하는 이들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
성히 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를 거저 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애써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권영호)

자원봉사를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본당 102호(내선 421)로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특히 출현기도원과 출현동산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하여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님께서는 우
리에게 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
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당초에 의한 합병증과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이다. 결
국 국내와 뇌에 광양이 굳어 퍼져 왼쪽 눈이 실명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던
서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는 신약(新藥)으로 치료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는 머리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
다고 하였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에 찬양하며 고통을 이겨내고 계셨다.

"내 영혼에 노래 되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여이사라 듣고 계시네"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드렸다. "사랑의 주님! 다시 온 가족이 모여 함
게 찬송 부르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요." 이후에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질환은 빠르게 치유되었
고 의사들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듯 기뻐하며 조심스럽게 퇴원시켜 주었다. "내 영혼에 불꽃 되어서
주 함께 할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쫓아내" 최근에는, 수십 년간 예수쟁이라고 나를 칭하던 종손
인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셨다. 올 설에는 제사를 폐하고 주드예배를 드시더니 이제는 안 믿는 삼촌들께
복음을 전하시겠다 한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빛은 얼굴 빛을 내 나의 영혼에
다"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햇빛이 비칠 것임을 전설로 믿기에 나는 더
욱 찬양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최선영(집사, 월월루아 찬양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함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05	김기순	7	장신부	최은혜(11)	1331	이요한	청년1부	남영호(15)
1306	정호	7	원신부		1332	나예라	청년1부	김광(2)
1307	김재기	19	원신부		1333	최희주	청년2부	김현희(9)
1308	도영아	19	원신부	배은혜(3)	1334	글리	원신부	서혜현(11)
1309	강종훈	19	중동3부	임금(11)	1335	루도윌라	원신부	이시영(11)
1310	사지후	19	원신부	성대원(16)	1336	유영	원신부	장준호(1)
1311	보빈	19	원신부		1337	유영	원신부	장준호(1)
1312	김정호	9	청년2부	김재호(16)	1338	박승현	청년1부	신혜영(2)
1313	박정훈	19	중동3부	이영준(9)	1339	송영미	청년1부	이은정(2)
1314	이광진	19	중동3부	이영준(9)	1340	송영미	청년2부	이현숙(6)
1315	유영준	19	중동3부	오재원(16)	1341	전은하	대학부	권민숙(6)
1316	김정호	9	청년2부	김재호(16)	1342	이진주	대학부	이은혜(6)
1317	이영준	19	대학부	이은준(17)	1343	김정희	청년1부	
1318	김정호	19	중동2부	전희애(8)	1344	비호	원신부	황정희(7)
1319	황정희	1	고동부	황정희(1)	1345	조종	원신부	황정희(7)
1320	유영준	19	고동부	황정희(1)	1346	상성	원신부	라나(19)
1321	한영희	19	대학부	정승진(16)	1347	김미리	대학부	정승진(1)
1322	김종호	7	청년3부	고승준(18)	1348	이오희	청년1부	최정희(9)
1323	김진희	7	청년3부	김은진(7)	1349	정영희	청년1부	전종호(1)
1324	김재희	7	청년3부	김은진(7)	1350	유지인	청년1부	서혜현(2)
1325	전영수	19	청년2부	조연애(8)	1351	제승현	청년1부	김진우(2)
1326	이승수	19	청년1부	김종훈(1)	1352	박혜현	청년1부	정혜설(14)
1327	조영희	8	청년1부	유영희(16)	1353	문세화	대학부	
1328	이영준	19	청년1부	정영희(13)	1354	문미리	청년2부	
1329	노혜남	8	청년3부	김은준(9)	1355	제임스	청년2부	
1330	박종기	8	청년3부	김희창(9)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전체 회의
일시: 30일(오늘) 15:00
장소: 감리리층
2. 안수식자 3차회 5월 월례회
일시: 1일(월) 05:40
대상: 감리리층
3. 권사회 전체 집회 기도회
일시: 3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감리리층

별세

1. 최칠승 문씨전사자(고정선 김사의 모친, 김승전 성도의 장모, 3교구 개나리구역) / 26일 별세, 28일 장례

결혼

1. 지상혁 군(서영일 집사, 홍인숙 집사의 아들, 1교구)와 김수정 양(김광일 집사, 양영희 집사의 딸, 19교구, 복원교회) / 5일(수) 11:00 감리리층
2. 김현중 군(김진국 장모, 권옥순 권사의 아들, 1교구)와 신영애 양(신현환 집사, 이영희 집사의 딸, 19교구, 약대교회) / 5일(수) 15:00 감리리층
3. 김진상 군(김성용 씨, 이옥희 성도의 아들, 약수교회)와 김현영 양(김기자 장모, 권옥순 권사의 딸, 11교구, 장동노교회) / 5일(수) 13:00 한국기독교교회

4. 연합회 3층 연합예배당
2006년도 4월 30일(오늘) 저녁, 양친목 권사의 아들, 8교구)와 송유정 양(송인실 집사, 김승희 집사의 딸, 구미 하운교회) / 5일(수) 15:00 감리리층
5. 이자혜 군(한영숙 권사의 아들, 7교구)와 이우현 양(이대양 집사, 김소희 씨의 딸, 7교구) / 5일(수) 15:00 코리아인턴십센터 6층 컨벤션홀
6. 양희복 군(양영식 씨, 김상철 씨의 아들)와 최진정 양(최계출 성도, 신조자 권사의 딸, 11교구) / 6일(목) 13:30 강남 Y회 단원홀
7. 정재호 군(최영숙 집사의 아들, 18교구)와 김민희 양(김성수 장모, 고순안 권사의 딸, 여의도순복음교회) / 6일(목) 14:00 한양대 동문회관 6층 대禮홀

2006년도 제6차 CMTC 윤련 (교육과정: 2주전 장소: 감리리층)

구 분	5월 7일(연수주일)	5월 14일(주일)
제1강(18:10-18:50)	사도행전의 선교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제2강(19:00-19:40)	2006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향	2005년도 선교사역 지역 개발 및 개선 사항

◆ 장년3부 총동원 전도집회

일시: 4월 30일(오늘) 12:30
장소: 제1교당관 307호
대상: 60대 남녀 성도

◆ 단기선교 팀장 윤련

일시: 5월 3일(수), 10일(수)
장소: 2부 예배 후
장소: 배너리홀

교회직원 모임

- 1.모집 부문 경비직
총현기도회 주임(여)
- 2.자 격 세례 고인
- 3.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임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552-8200 (내선 403)
- 4.서류제출처

5월 주일 및 수요일예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I	II	III	IV	V		I	II	
5	7	원옥월	김단용	석영식	정신현	박용규	표양렬	김경숙	김은호	
	14	조종환	정정길	김은철	전학래	최은덕	전상진	최영실	황은선	
	21	권명옥	정태두	구재환	박덕양	김승곤	홍순길	황명숙	홍복기	
	28	차신득	김필철	전은배	이계인	김구형	윤상철	박윤석	김순임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5/1(월)	5/2(화)	5/3(수)	5/4(목)	5/5(금)	5/6(토)	5/7(주일)
설교자/기도자	조규자/김영수	이재형/이덕규	이경준/조성훈	이창수/박민희	김준희/유재훈	윤수일/유복자	장충선/이복순

예배담당 안내 (5/3-5/7)

날짜	예배	찬 양	사회	기도	설 교
5/3	수요 I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호산나 찬양대)	이경준	정호진	참 목자이신 예수님 (마 23:1-12) 안치원 목사
5/3	수요 II	코린 파수 난 위해 (설교안 찬양대)	김재석	윤자옥	다소 사탄 사울 (행 9:11) 최종철 목사
5/5	금요일	바이올린 이예스다 / 조동부 중창단 / 바리톤 오상익	고광환		정진호 목사
5/7	주일 I	(예배 전찬양)	황진실	원용철	오실 그이가 당신시오나이어가? (눅 7:18-28) 윤수일 목사
5/7	주일 II	나의 사랑하는 책 / 현악4중주(소년부·중동부)	양재복	김단용	오실 그이가 당신시오나이어가? (눅 7:18-28) 김성관 목사
5/7	주일 III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현악4중주(소년부·중동부)	정현민	석영식	오실 그이가 당신시오나이어가? (눅 7:18-28) 김성관 목사
5/7	주일 IV	반다 푸와 비장지 / 소프라노 김승자(연희 찬양대 솔로리스트)	나광영	정현민	오실 그이가 당신시오나이어가? (눅 7:18-28) 이종대 목사
5/7	주일 V	거기 나 있었는가 / 별명 오케스트라	김영훈	박용규	오실 그이가 당신시오나이어가? (눅 7:18-28) 하종철 목사
5/7	주일찬양	소망부 중창단 / 밴드팀 연주대 / 합창단이나 찬양대	정충선	표양렬	생 명 (요 6:53-58) 장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회	시 간	차 량
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일출반
금요일	저녁 11:00	금요일회 후당 일출반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회, 오직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시행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동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감 리 리 층
사 망 부	오전 11:00	목자관 저하1층
예배다무	오전 9:00(여성)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타 국 부	(수) 오전 8:30-오후 4:10 (토) 저녁 7:00-제2교	교육관 110호
새가족목양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홀
출현이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교부	오전 11:00	아 엔 홀

심 · 기 · 는 · 본 · 돌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희철 김은호 노영환 이병화 이훈
- 남선우 김동주 최무길 이상호 차신득
- 김강남 이우식 임무현 한용훈 전홍원
- 이정우 김단용 한승규 김양수 김환기
- 원용철 이은성 안동원 황완민 김구형
- 최은덕 이계인 박덕양 배준희 정태두
- 박용규 권민옥 조종환 이대식 김단용
- 이철호 최지은 노영환 박진규 정정길
- 신상수 고재승 김철원 김형은 이담용
- 장원환 김승준 함철규 유석민 장진현
- 안석현 김현철 김성국 김승진 임창식
- 장승주 전준호 석영식 구재환 송두식
- 최자용 신진길 유상배 박상대 김규식
- 신관철 김성환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 여국근 안창현 나광영 정진호 김용택
- 고광환 고인환 김익환 장 준 임현덕
-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충선
- 양재복 이영진 조규자 최성규 이재영
- 이경준 이종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성
- 정성명 이정훈 김대석 김성훈
- 여전도사
- 신동자 윤은진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 이옥주 김민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철
- 최보실 전은희 김영순 김경자 김희희
- 이복순A 류진희 한성민 임태두 강영미
- 유지자 이복순B 강소희 조영희
- 찬양감독 김진규
- 전임목사 서준성 김원집
- 전임목사 김소연
- 전임전도사 장현희
- 전 교 사 송요한

교외 오시는 길

